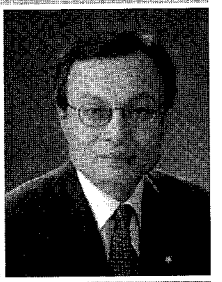
역사의 물줄기에는 우연이 없다

민통련, 그리고 6월 항쟁의 기억들



국무총리 이해찬

1952년생, 서울대학교 민통련 정책실장,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5선의원

역사의 큰 사건 뒤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들이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들에 우연이라 이름 붙이기를 거부한다.
그 사건들 뒤에는 항상 온 몸으로 버텨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연'을 언제나 '필연'으로 만들어낸다.

민청학련, 민청련 그리고 민가협. 지금은 너무도 쉽게 마치 한 정파의 이름처럼 '재야'라 불리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 이름들은 젊은날의 가슴 벅참 한 구석에 유신과 5공화국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버티기 위해 붙들어야만 했던 눈물겨움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창립 스무 돌을 맞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떠올리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생생한 나날들이 되살아나기에 눈물겨움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한다.

민주화의 오랜 여정에서 1987년 6월은 역사의 루비콘 강에 해당한다. 더 이상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와 같은 독재의 길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나는 민통련의 이름으로 이 강을 건너는 험난한 장정에 함께 했던 자랑스러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준비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승리한 자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었다

6월항쟁은 승리한 싸움이다. 비록 다시 군부 출신 대통령을 맞아 색이 바랬고 3당 합당과 공안정국 등 군부독재를 연상시키는 저들의 반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승리였다. 6월항쟁은 한국이 가야할 길을 민주주의로 고정시켰고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민주 정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랜 민주화운동 과정의 경험으로 큰 싸움을 이겨내는 데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폭넓고 자발적인 대중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승리의 관건이다. 운동과정에서 때로 강한 의식성에 기반한 선도적 운동이 필요하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대중이 참여해야한다. 대중의 힘을 무시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외면의 대상이 되고 결국 과격한 모험주의에 경도되기 쉽다.

둘째는 이러한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도부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6월항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야 민주화운동세력 뿐 아니라 종교계, 학계 등 양심세력 그리고 정치권까지 포괄하는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6월 항쟁 이전까지 폭압적인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광범한 국민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4·13호헌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응집하는 데는,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범 국민전선의 형성이 필수적이었다. 나는 민통련의 이름으로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적극 참여했고 이를 성사시킨 것에 대해 지금도 보람을 느낀다.

87년 6월항쟁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시민, 학생들의 힘이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다는 점과 결국 그 결실을 독재 세력에게 다시 넘겨주었다는 면에서 일견 4·19의 재판처럼 보인다.

그러나 준비된 역량없이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다가 쿠데타 세력에 무너진 4·19와는 달리, 6월항쟁은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렸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노태우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힘에 떠밀려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흐름은 문민정부를 넘어 국민의 정부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도도히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신이후 축적되어 온 한국 민중의 힘과 온몸을 던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민주화운동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민통련은 1985년 3월 29일 창립부터 80년 5월의 좌절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모색과 다가올 권력교체 국면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문익환 목사님, 계훈제 선생 등 원로분들과 이창복, 장기표, 임채정, 김종철 등 중견 활동가 선배들, 그리고 젊은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한 조직적 틀을 만들었다. 민통련은 지식인이나 학생들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지역운동협의회와 부문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부문의 조직에 기반을 둔 운동을 중시했다. 요컨대, 민통련의 중앙 지도부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더라도 지속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 있고 새롭게 재생산 할 수 있는 풀뿌리 조직기반을 갖춘 셈이다.

이들 지역과 부문 조직이 있었기에 5·3인천사태 이후 민통련 본부와 가맹단체 간부들이 무수히 투옥되고 수배당했지만 민통련은 건재할 수 있었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6월항쟁 기간에는 국민운동본부의 실질적 근간이 되어 전국적인 투쟁의 선두에 서는 기수들이 되었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국민운동본부, 야당과 종교단체를 아우르다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 2·7규탄대회부터 6·26평화대행진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힘겨웠고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은 국민운동본부의 창립과 6·26 대회의 강행이었다.

사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은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86년 5·3인천사태로 거의 모든 조직의 지도부가 검거되거나 수배 중이었으며, 민통련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더욱이 86년 11월의 건대사태로 인해 학생운동권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바로 이 무렵 군부독재세력은 민주화운동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민통련 사무실까지 강제로 폐쇄해 버렸다.

이렇게 살벌한 상황에서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2·7전국규탄대회와 3·3고문추방대회는 반전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민주화운동 진영만의 싸움이었고 국민대중이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싸움은 아니었다. 훗날 들었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판단하고 4·13호헌선언을 했다고 하니, 어찌보면 권력의 오판을 유도하여 결국 제 무덤을 파게 했다는 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과가 자못 지대했다는 생각도

든다.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었으니, 이 양 대회를 걸쳐 경찰의 동원 체제를 샅샅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곰곰히 살펴보니 약 6만여의 전경이 160명 단위로 1개 중대가 편성되고 3개 중대가 1개 편제로 이동하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국에서 30개 이상 지역에서 시위가 동시다발로 있을 경우 한 지역에 전투경찰이 동원될 수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이런 분석을 토대로 서너 지역에 수만씩 모으는 것보다는 수십 개 지역에 수천씩 모으는 것이 경찰 봉쇄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임을 알게 된 것이다.

또한 가두시위에서 경찰과 대치할 경우 전면에는 하급자가 후면에 상급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항상 병력의 후면이 취약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시위 현장에서는 의외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학생들에게 알려 준 이러한 정보들이 6월항쟁 현장에서 전투경찰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다. 민통련 간부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가히 가두시위에 관해서는 프로선수가 된 셈이다.

어쨌든, 4·13호헌선언 이후 당시 야당과 종교계, 그리고 재야 운동권 모두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종교계는 당시 야당과 하나의 조직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었다. 재야와 종교계만의 연합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야당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민통련의 주장에 대해 종교단체, 특히 가톨릭 측은 정치권의 순수성 문제와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동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대변되는 야당의 참여는 다수 국민들의 참여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민통련 동료들의 판단이었다. 우리들은 종교계가 국본 참여를 포기하는 결과가 빚어지더라도 야당은 참여해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종교계도 이에 동의, 국민운동본부의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서로간 다소의 의견 불일치가 있기는 했지만, 야당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대중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결국 6월항쟁에서 승리의 한 요인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본 결성 이후, 중요한 것은 차질없이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실무는 민통련 출신의 30대 청년활동가들의 차지였고 우리는 무조건 경찰에 잡히지 않아야 했다. 항시 수배상태와 마찬가지였던 나는 차에 침낭과 코펠을 싣고 이동 숙소겸 사무실을 꾸렸는데, 당시만 해

도 운동진영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여러 실무자들은 내 차에서 회의도 하고 유인물을 나르고 경찰의 감시를 피하는 등 여러모로 잘 활용했다. 후에 관악경찰서 형사들이 내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푸념들을 했는데, 그 일등 공신은 연보랏빛 고물 포니2가 아닌가 한다.

17일간의 싸움, 승리, 그리고

그해 6월 10일은 '보통사람'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바로 그 6월 10일을 D데이로 잡았다. 한마디로 군부독재의 잔치판에 재를 뿌리기로 한 것이다.

성공회 성당에서 계훈제 선생, 박형규 목사, 지선스님과 유시춘 씨의 타종과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범국민대회'라는 긴 이름이 붙은 그날의 싸움은 밤늦게까지 전국에서 계속되었다. 경찰 병력을 분산시켜 봉쇄망을 엷게 한다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통련의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국본 지역본부 전체를 움직인 것이 주효했다. 전국이 엄청난 시위대로 꽉 찼고 이날 경찰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시달려야 했다.

6.10은 성공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동성당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농성대의 강력한 결의에 경찰의 실수도 겹쳐 명동성당은 6월의 모든 관심이 모이는 곳이 되었지만, 다음날부터 해산과 농성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다음 대회까지 6·10의 열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명동성당은 불씨를 이어줄 화로였다. 다만 며칠이라도 버텨준다면, 18일까지 그 열기가 이어질 것 같았다. 당장 김부겸과 이명식을 파견했다. 그리고 명동성당은 5박 6일을 버텨주었다.

6·18최루탄규탄대회는 50만을 모아냈다. 또 성공이었다.

이미 6·10 이후에 계엄과 공수부대 투입이라는 불온한 소식은 계속 들려왔었다. 나는 그때 이명준, 황인성 등과 함께 매일 일일상황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18일 오전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건너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군부대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

다.' 란 말만 되풀이했다. AFKN이 미군 외출 금지를 알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다. 국민운동본부 내에서도 동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이즈음에서 싸움을 멈추고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역사는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들이 만든다

80년 광주의 기억은 우리에게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닥쳐 올 수 있다는 몸서리로 다가왔다. 마리스타 수녀원에서는 6·26대회 강행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주장했고 종교계는 주춤거렸다. 그러나 민통련은 계속 강행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 헛된 희망임을 알면서도 영수회담이란 것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 걸고 싶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스스로 회개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망상임을, 유신의 터널을 거치고 80년 5월을 경험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각오했다. 어차피 군이 나와 80년의 광주가 서울과 전국에서 재연된다면 우리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저들도 머잖아 끝장날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군이 나와도 총을 들지 못한다면, 경찰이 좀더 많아지는 것뿐이다. 80년 5월을 경험한 우리는 지난 7년간 전국적 항쟁을 조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 무수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투옥과 수배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다시 80년 5월 서울역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안타까운 실수를 되풀이한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종교계와 정치권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6·26싸움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민통련 지도부와 실무자들은 끝까지 설득하며 강행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기로.

우리의 예상한 바와 같이 전두환과 김영삼의 영수회담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솟아져 나왔다. 6월 26일 평화대행진에는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100만의 인파가 거리를 덮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6월항쟁 기간의 잦은 시위로 인해 이 당시 경찰은 이미 보유했던 최루탄 재고를 다 소진했고, 건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쓸모없는 최루탄조차 생산이 달렸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는 남지 않았다. 군대를 출동시키거나 무조건 항복하

거나. 그리고 6월 29일, 함께 항복해야 하는 자였던 노태우는 도마뱀 꼬리를 자르듯이 전두환과 결별하는 모양을 취하며 자신이 앞장서 항복을 받아내는 쇼를 국민 앞에 연출했다. 우리는 이것이 기만적인 사기극임을 알고 있었지만 직선제를 관철했다는 것으로 정치권은 이미 선거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전국에서 타올랐던 투쟁의 열기도 급격히 사그러들고 말았다.

역사의 큰 사건 뒤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들이 있다고들 한다. 나도 역사의 물줄기를 결정하는 큰 국면에서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들에 우연이라 이름 붙이기를 거부한다. 그 사건들 뒤에는 항상 온 몸으로 버텨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연'을 언제나 '필연'으로 만들어낸다.

역사는 끈질기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6월항쟁 기간동안 민통련은 명동성당과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버텨낸 이름없는 시민들과 학생들, 아니 유신과 5공이라는 암흑을 끈질기게 버텨온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버텨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필연의 일익을 담당해낸 것이다.

나는 그 이후 정치에 몸담아 오늘에 이르렀지만 내 가슴 한가운데는 여전히 민통련 시절, 6월항쟁의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미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숱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국민과 더불어 가야한다는 교훈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부가 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이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은 지난 민통련 시절과는 달라졌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소중하고 우리를 밀어가는 힘이라 믿는다.

민통련 창립 20주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건 그 날, 그 거리에서 목놓아 민주주의를 외치며 함께 했던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